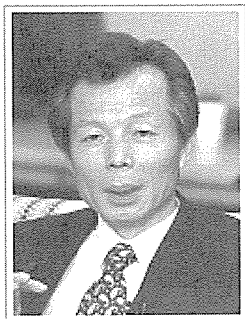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파수꾼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

이 헌 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독자적으로 사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의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을 이번에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정서를 맺었으며, 그 발효에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핵 투명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자력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 통제 정책의 강화가 원자력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왜 굳이 통제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이 미미한 초기 단계일 때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또한

###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 및 기능

원자력 통제의 임무를 지니고 지난 6월 30일 출범한 통제기술원은 독립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기틀을 잡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에 먼저 주력할 것이다.

앞으로 통제기술원은 우리나라 국가 원자력 통제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 안전 조치 협정 및 추가의

**원**자력은 인간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서 인류의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대량살상 무기로 인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엄격한 국제 규범을 만들었고 모든 나라들이 지키도록 요구해 왔다.

기술 수준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원자력 통제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북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4년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4원칙을 국내외에 천명했으며,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부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나라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자력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핵 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통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기술원은 이와 같은 원자력 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원자력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는 '통제정책부'와 안전 조치 활동 등 통제 관련 행위의 이행을 담당하는 '통제이행부', 그리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업무는 '기획행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 협력 및 홍보 역할은 홍보협력실이 맡고 있다.

**향후 활동 및 전망**

통제기술원은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델이 되는 선진 수준의 원자력 통제 전문 기관이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AEA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IAEA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통제 기술의 탁월성을 인정받아야 IAEA가 대부분의 사찰을 회원국에 위임하는 통합 안전 조치 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지금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찰 장비가 IAEA의 공인을 받아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기술은 IAEA와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통합 안전 조치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찰관들이 IAEA에 진출해서 국제적인 사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대폭 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통제기술원은 위성 사진 분석과 환경 시료 분석 등 핵심 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선진 우수 기관들과 기술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자력 통제 분야는 기술적 판단 이외에도 고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통제기술원은 기술적 능력에 대한 탁월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국가 원자력 통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Think -Tank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통

제기술원은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원자력 외교의 경륜과 국제 감각을 지닌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명성 확보 및 핵비확산 체제와 관련된 발언권의 강화를 위해 원자력 통제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핵비확산에 관한 학위 과정이 신설되는 등 인력 양성체제가 보강되고 있다.

사실 원자력 발전 산업 규모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노력과 기존의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비확산에 대한 명확한 국가입장,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방향 결정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우리 통제기술원에 부여된 역할과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통제 업무 수행과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 원자력 통제 기관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하며, 유관 기관 및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